

# 報 道 資 料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6. 5. 10.

홍보팀(3441-0835)

담당부서	건설정책 연구실	연구책임자	백성준 부연구위원 강민석 책임연구원	전화 번호	3441-0774 3441-0769
------	-------------	-------	------------------------	----------	------------------------

## 제 목: 2006년 4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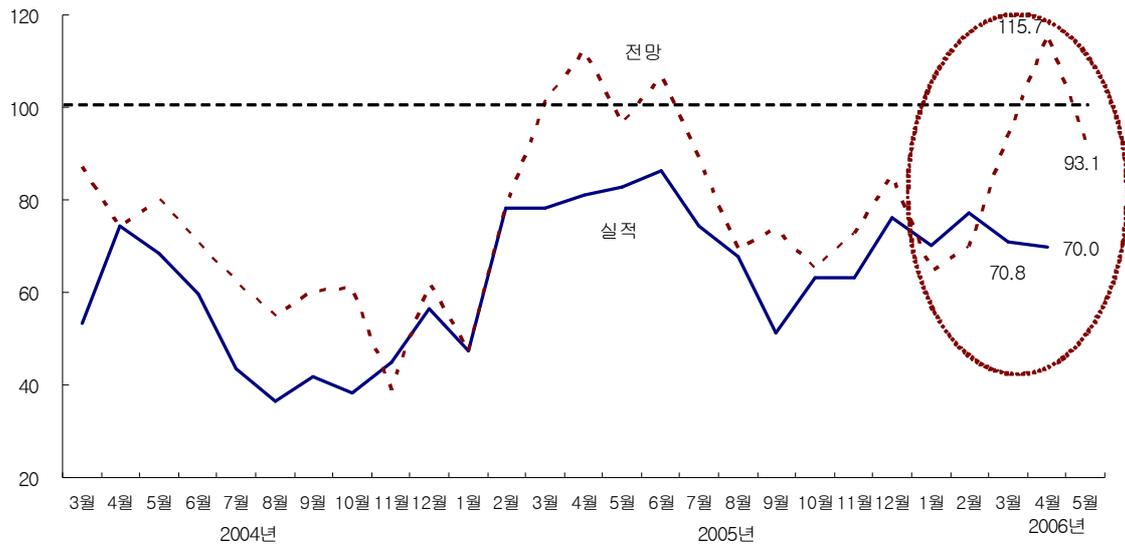
- 2006년 4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70.0을 기록함.
  - 지수는 지난달에 비해 0.8p 하락하였으며, **지난달 전망지수와 격차가 45.7p**로 경기회복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음을 의미함.
  - 이는 국가계약제도 변경지연 등으로 인한 1/4분기 물량 감소로 4월 이후 물량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컸으나 실제 물량은 기대에 미치지 못함.
  - 규모별로는 **대형업체(85.7)가 2개월째 기준선에 미치지 못했으며, 중견업체(55.9), 중소기업체(67.6)의 체감경기도 여전히 낮은 상태임.**
- 5월 전망지수는 지난 3월 전망치에 비해 22.6p 하락한 93.1을 기록함.
  - 최근 공사물량증가에 대한 기대감에 비해 실적이 부진해 **향후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함.**
  
- **공사물량지수는 81.3**을 기록하여 전월대비 3.7p 상승하였으나 기준선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물량 부족 상태는 계속 되고 있음.
  - 공종별로는 **토목(66.5)부문이 5.3p** 하락하였으나 **주택(87.7)부문은 대형업체의 호조로 22.8p** 상승함.
  - 규모별로 보면 **대형업체(100.0)가 기준선을 회복하였으나 중소기업체(69.2)와 중견업체(72.7)는 물량부족 상태가 지속됨.**
  
- **인력과 자재부문의 수급은 원활하나** 여전히 비용은 높은 상태가 지속됨.
  - 인력과 자재수급지수는 각각 106.6, 99.3으로 수급상태는 원활한 반면, 인건비(92.1)와 자재비(79.5)의 부담은 계속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6년 4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4월 전망 CBSI 70.0, 건설경기 회복 기대에 크게 못미쳐

- 2006년 4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70.0을 기록함.
  - 지수는 지난달에 비해 0.8p 하락하여 체감경기가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지난해 9월 이후 상승하던 지수는 올해 들어 4개월째 70선에서 등락을 지속하고 있음.

< 경기종합 BSI 추이 >



- 규모별로는 대형업체의 체감경기가 2개월째 하락하였으며, 중소기업체는 전월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대형업체(85.7)는 지난달에 비해 3.2p 하락하여 2개월째 체감경기가 나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중견업체와 중소기업체는 각각 55.9, 67.6을 기록하여 여전히 체감경기가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체는 전월대비 17.6p 상승함.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와 지방업체가 각각 75.5, 64.6을 기록하였으며 지방업체의 체감경기 하락이 두드러짐.

< 규모별·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 분	2005년								2006년				5월 전망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총 합	82.9	86.4	74.2	67.8	51.3	63.0	63.3	76.1	70.1	77.2	70.8	70.0(115.7)	93.1	
구 모 별	대형	109.1	107.1	100.0	83.3	41.7	61.5	72.7	100.0	80.0	100.0	88.9	85.7(144.4)	100.0
	중견	71.0	90.5	76.5	63.9	59.1	76.9	59.3	79.4	70.6	71.1	70.6	55.9(100.0)	82.4
	중소	65.9	57.4	41.5	54.0	53.7	48.9	56.9	44.4	58.0	57.4	50.0	67.6(100.0)	97.3
지 역 별	서울	101.6	98.5	86.4	80.9	50.1	71.0	69.5	87.4	79.3	87.5	84.5	75.5(133.2)	109.4
	지방	54.4	63.6	59.8	57.6	55.5	60.3	53.2	38.8	57.3	62.3	49.8	64.6(91.1)	8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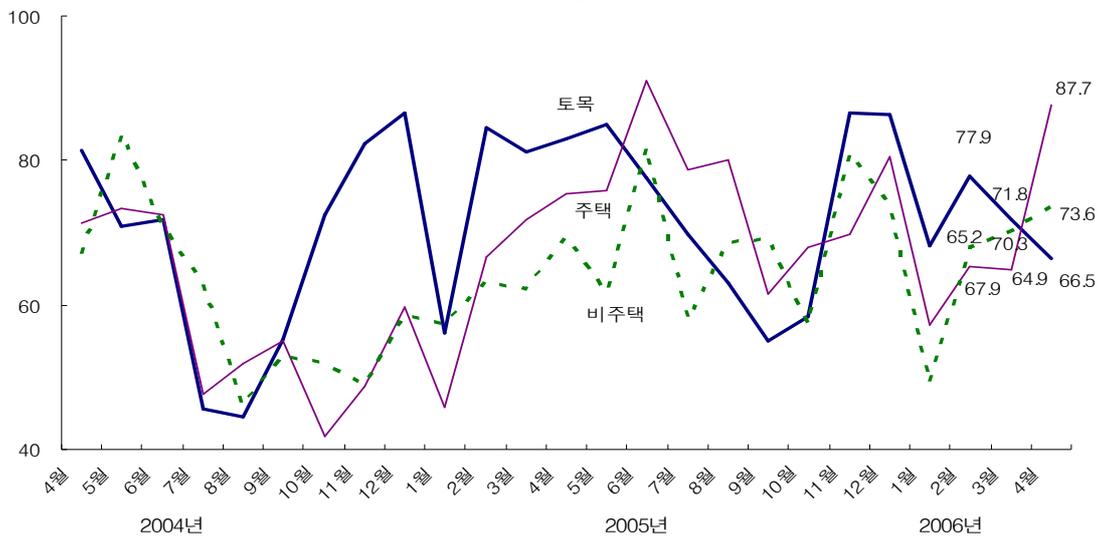
주 : ( )는 전월에 전망한 수치임.

- 3월 이후 다음달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반면 실제 체감경기가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3월과 4월 전망과 실적의 격차는 각각 23.1p, 45.7p로 업체들의 기대감과 실적과는 크게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예상되었던 공공발주가 국가계약법 등 제도변화 논의의 지연되면서 1/4분기 공사물량 감소로 인한 향후 물량증가를 기대했으나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1.4분기 수주물량은 9.7% 감소하였으며, 공종별로는 토목과 건축부문이 각각 22.6%, 1.9%, 공공과 민간부문은 각각 11.3%, 6.0% 감소함.
- 2006년 5월 건설경기 전망은 93.1을 기록함.
  - 지난달에 대형·중견·중소업체의 전망지수가 기준선을 넘었으나 5월 전망지수는 대형업체만 100.0을 기록함.
  - 이는 최근 기대에 비해 건설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기대감이 감소한 것임.

## 대형업체, 주택물량 증가

- 공사물량지수는 81.3을 기록하여 전월대비 3.7p 상승하였으나 기준선에는 크게 미치지 못함<sup>1)</sup>.
  - 공사물량지수는 2개월째 상승하며 전월에 비해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인 물량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

< 공종별 공사물량 BSI 추이 >



- 공종별로는 주택부문이 전월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으나 토목부문은 소폭 하락함.
  - 토목물량지수는 66.5를 기록하여 전월에 비해 5.3p 하락함. 특히, 중견업체의 경우, 20.4p나 하락함.
  - 주택부문은 87.7을 기록하여 지난 달(64.9)에 비해 22.8p 상승함. 이는 통상 4월 이후 분양물량이 증가하는데다 전년도에 지연된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됨.

1) 총 공사물량과 공종별(토목, 주택, 비주택)물량은 서로 다른 항목으로 조사됨으로 인해 공종별 지수와 전체 물량지수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비주택 부문은 73.6을 기록하여 기록해 전월대비 3.3p 상승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
- 규모별·지역별로는 전반적으로 크게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중견업체의 물량부족은 심각한 상황임.
  - 대형업체(100.0)는 공사물량 지수가 주택물량의 호조로 전월대비 11.1p 상승하여 4개월 만에 기준선을 회복함.
  - 중견업체와 중소기업체는 각각 72.7, 69.2를 기록하여 전반적으로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중견업체의 경우 전월대비 14.8p하락함 .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가 90.5로 전월(64.4)에 비해 1.2p 상승하였으며 지방업체도 72.2로 13.0p 상승함.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합	대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81.3	100.0	72.7	69.2	90.5	72.7
	전망	91.4	83.3	96.8	94.9	77.3	96.3
토목	실적	66.5	71.4	66.7	60.5	75.3	60.1
	전망	82.4	71.4	84.8	92.3	84.9	90.9
주택	실적	87.7	128.6	80.0	48.6	113.7	46.8
	전망	104.2	128.6	103.3	76.5	120.4	85.2
비주택	실적	73.6	114.3	61.3	40.0	85.1	49.8
	전망	74.8	71.4	83.9	68.6	70.1	74.1

주 : 실적은 2006년 4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06년 5월 예측지수임.

- 2006년 5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91.4를 기록함.
  - 지난 3개월째 전망지수 지수가 크게 상승하였으나 이번 달에는 기준선 밑으로 하락함(54.8(12월 전망)→78.3(1월 전망)→98.2(2월 전망)→100.5(3월 전망)→91.4(5월 전망)).

## 건설업체 자금조달 악화 지속

- 자금관련 상황은 대형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공사대금수금지수와 자금조달지수는 각각 82.2, 86.8로 지난달 보다 다소 하락함.
  - 대형업체의 경우 공사대금수급과 자금조달지수가 각각 85.7, 100.0을 기록하였으며 공사대금수금지수는 7개월만에 기준선 아래로 하락함. 이는 최근 지방 주택경기 악화로 인한 분양지연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됨.

**< 자금·인력·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건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수급	실적	82.2	85.7	76.5	84.6	83.8	78.3
		전망	100.0	114.3	85.3	100.0	108.1	92.8
	자금조달	실적	86.8	100.0	82.4	76.3	97.1	72.4
		전망	97.0	114.3	88.2	86.8	109.7	79.8
인력	수급	실적	106.6	114.3	100.0	105.1	111.0	101.8
		전망	102.3	100.0	100.0	107.5	98.4	105.5
	인건비	실적	92.1	114.3	75.8	84.6	103.1	81.5
		전망	76.7	71.4	81.8	76.9	78.3	68.6
자재	수급	실적	99.3	85.7	105.9	107.7	94.3	107.3
		전망	98.2	100.0	97.1	97.5	100.0	98.2
	비용	실적	79.5	100.0	69.7	66.7	93.5	62.9
		전망	72.5	100.0	60.6	53.8	87.5	53.7

주 : 실적은 2006년 4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06년 5월 예측 지수임.

- 인력과 자재조달의 경우, 수급 여건은 원활하나 비용 측면에서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인력수급과 자재수급지수는 각각 106.6, 99.3으로 전월대비 2~6p 하락하였으나 전반적인 공사물량의 감소로 인력 및 자재 수급은 비교적 원활한 것으로 판단됨.

- 인건비(92.1)는 전월에 비해 크게 나아졌으며 자재비(79.5)는 여전히 높다고 응답한 업체가 많음.
- 2006년 5월에도 인력 및 자재의 비용은 높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조사됨.
  - 2006년 5월의 인력과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102.3, 98.2을 기록하여 인력 및 자재수급은 여전히 원활할 것으로 예상됨.
  - 인건비 지수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76.7, 72.5를 기록하여 인건비와 자재비용 상승 부담은 클 것으로 예상됨.